

# 전남도 공무원 사회적 약자 166명 채용

### 전국 지방공무원 1만7561명 선발...전년비 25% 늘어 광주 230명·전남 1203명...다음주 초 최종 일정 발표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해 1433명을 공채하는 등 전국적으로 지방공무원 1만 7561명이 선발된다.

특히 전남도의 올해 공채규모는 역대 최대로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공직 퇴직이 늘고, 사회복귀 수요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시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파견 공무원들이 오는 7월 본청으로 복귀하는 점을 감안해 올해는 평년 300명 수준보다 다소 낮은 인원을 선발하기로 했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1만4087명)보다 3474명이 늘어난 1만7561명 규모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1만6164명, 특정직(소방) 1356명, 별정 및 임기제 41명 등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통합차원에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진출 기회를 넓혀 줄 계획이다. 장애인 구분 모집은 7·9급 시험을 통해 786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679명)보다 107명이 더 증원된 인원이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을 대상으로 537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467명)보다 70명이 증가한 인원이며, 북한이탈주민도 9급을 대상으로 3명을 경력경쟁임용할 예정이다.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 공채에 나선다. 7급만 53명에 이르며, 8급 46명, 9급 1051명, 연구사 16명, 지도사 37명 등 본청(52명)과 22개 시·군(1151명)에서 1203명을 채용한다.

시험은 지난해(267명)보다 소폭 증가한 284명을 선발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317명(7급 4명, 8·9급 1313명)으로 지난해(632명)보다 배 이상 증가(685명)했다.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고, 근무는 오전 또는 오후로 정하여 근무하게 되며(1일 4시간, 주 20시간),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다음달 14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사회복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는 모두 1670명(전일제 1497명, 시간선택제 17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올해 23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번 주까지 시와 구청간 인원 조율을 마무리한 뒤 다음주 초에 최종 선발인원과 시험 일정, 응시자격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 개청 이래 최대규모의

공채에 나선다. 7급만 53명에 이르며, 8급 46명, 9급 1051명, 연구사 16명, 지도사 37명 등 본청(52명)과 22개 시·군(1151명)에서 1203명을 채용한다.

1203명 중 장애인 46명, 저소득층 38명, 북한이탈주민 2명, 고졸자 8명, 국가 유공자 22명, 시간 선택제 50명 등 166명은 별도로 구분해 선발한다. 응시자격은 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주소가 전남으로 돼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전남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나이 제한은 7급·연구사·지도사는 20세 이상(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8·9급은 18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제1회 임용시험이 3월14일, 제2회 6월27일, 3회 8월8일, 4회 10월17일 각각 치러진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 나주혁신도시 '청춘콘서트'

### 농어촌공, 5개 이전기관 미혼남녀 직원들 만남 이벤트



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청춘콘서트'에서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참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나주 빛가람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미혼남녀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직장을 따라 서울에서 나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들 전남선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춘을 공감하고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를 찾아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나주 빛가람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안착과 직원들간의 건전한 만남을 위해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청춘콘서트'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아름다운 만남을 위한 청춘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전력거래소,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광주·전남 혁신도시

로 이전한 5개 기관의 남녀직원 40명이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는 남성 26명 여성 14명으로, 자기소개와 게임 그리고 짝 찾기 이벤트 등으로 분위기를 돋웠다. 마음에 드는 짝을 발견한 이들은 근무처 이전으로 인한 소화를 나누며 또 다른 아름다운 만남을 기약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혁신도시로 이주한 청춘남녀들이 건전한 만남을 통해 혁신도시 내에서 빠르게 정착하고 활기찬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모임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주 기관간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증대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혁신도시 공공기관협의회 다음달 발족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 공동회장인 이낙연 전남지사와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협의회 발대식을 겸한 한마음전진대회에 3월 중 혁신도시에서 열기로 했다.

이 지사와 이 사장은 9일 농어촌공사 로비에서 시작된 전남 정보화마을 및 사회적기업 주체 실무자 특산물 직판행사를 함께 둘러본 뒤에 따로 만나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협의회 발대식 겸 한마음전진대회에 유명 연예인들도 초청하겠다"며 "광주·전남 소재 대

학들과 혁신도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남도가 추진 중인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대규모 나무 심기 행사를 3월 중 혁신도시에서 열겠다"고 밝히고 "서울에 남아 계시는 혁신도시 입주기관 임직원들의 가족들을 위한 전남관광 버스투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강인규 나주시장도 "혁신도시 입주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을 위한 배꽃축제를 4~5월에 열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광주시 버스준공영제 회계감사 강화

### 회계전문가 선발

광주시는 9일 "버스준공영제 지원 업체 등에 대한 회계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는 버스준공영제 지원금과 시 산하기관 보조금 집행 과정을 감시할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회계전문가를 선발하기로 했다.

선발 인원은 광주시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준공영제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할

지방행정 6급(일반임기제) 1명이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해 경력기준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근무기간은 2년으로, 업무능력이 나 성과에 따라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광주시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시 행정지원과 교육고시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원세훈, 대선 개입 유죄 '법정 구속'

### 항소심서 징역 3년...이종명 차장·민병주 단장 집행유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담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담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갯수도 27만 4800회에 달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원심이 175개 계정 및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채택된 증거가 훨씬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

반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담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심리전담 직원들이 2012년 1월1일~12월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27만 3192건을 분석한 결과다. 2012년 8월 이전에는 정치 관련 글이 84%~97%로 선거 관련 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선거글이 77%로 정치글(2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대선을 앞둔 12월에는 선거글이 83%까지 치솟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처럼 정치글과 선거글의 비중이 바뀐 것에 주목해 심리전담의 활동을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6/7층 라식센터  
4/5층 수술센터  
2/3층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로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농막·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상무지구 방면  
운암동 방면

**밝은광주안과**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